

(2) 정충사(旌忠祠)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으로서 진주성싸움에서 순절한 충의공 장윤(張潤)을 제향하기 위해 1682년(숙종 8)에 건립한 사우이다.

원래 1607년 조정에서는 진주성싸움의 순절인들을 기리기 위하여 진주에 창렬사(彰烈祠)를 건립하고 김천일(金千鎰)·황진(黃進)·최경회(崔慶會)와 장윤을 제향토록 하였다. 그러나 장윤의 후손 및 순천의 유림들은 창렬사의 여러 제향 인물들이 각기 고향에 원사가 건립되고 또 사액까지 받은 것에 주목하고, 순천 유생 정인향(鄭仁享) 등이 주동하여 장윤의 사우 건립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부사 신학(申澤)에게 장계하고, 또 허철(許哲) 등 도내 유생들은 전라감사 이사명(李師命)에게 사우의 건립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때 건립된 사우의 명칭은 '정충사(貞忠祠)'였다. 다시 1685년에 유생 조필문(趙弼文) 등이 청액소를 올려 이듬해 '정충(旌忠)'이라는 액호를 받아 정충사가 되었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907년 후손인 장현석 등이 옛 자리에 복설하였고, 1946년에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저전동 176번지에 있다.

장윤(1552~1593)은 자가 명보(明甫), 호는 학봉(鶴峯), 본관은 목천으로 선전관을 지낸 응익(應翼)의 아들이다. 1582년(선조 15)에 무과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친 후 사천현감이 되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성에서 거병한 의병장 임계영(任啓英)의 막하에 들어가 함께 금산·무주·성주·개령 등지를 전전하며 큰 공을 세웠다. 이듬해 진주성싸움에서 순절하였다. 죽은 후 병조참판을 증직받았고 영조 때 '충의(忠毅)'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다시 철종 때는 좌찬성에 추증되었다.